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3월 4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석유산업과 강경성 과장(044-203-5220), 김정운 사무관(044-203-5227)

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윈-윈하여 8조원 규모 투자유치
- 석유정제화학시설 건설과 비축유 저장시설 지하화 본격 시동 -
- 산업부 윤상직 장관 현장에서 투자 프로젝트 직접 점검 -

□ 석유공사 울산비축기지의 지상 부지 일부가 공공기관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**2014년 2월 21일 에쓰오일에게 최종 매각**되었음

* 울산석유비축기지 : 총 180만㎡ 부지에 지상탱크 18기 1,350만B 운영 중
** 부지매각 : 매각면적 92만㎡, 매각금액 5,190억원

○ 금번 석유공사의 울산 비축기지 부지 매각은,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제공함으로써

○ 공공기관이 토지를 보유했던 **당초의 목표는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**하면서,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것으로 **민/관이 상호 윈-윈하는 맞춤형 투자지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**됨

□ 금번 석유공사 부지 매각은,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외국인투자간담회와 5월 개최된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**에쓰오일측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공장을 지을 부지가 없다는 신규 공장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**한 데 따른 것으로

○ 이때 마침 에쓰오일 인근에 위치한 **한국석유공사 석유 비축기지 지상탱크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공장부지로 활용**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 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임

○ 이후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울산비축기지 부지활용 T/F를 구성하고 **입지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및 법률적 검토를 거쳐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월 21일 에쓰오일에 부지를 매각**하게 된 것임

□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한 에쓰오일은 **총 8조원 규모의 투자에 바로 착수할 계획**으로 우선 1단계로 2017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여 중질유 분해시설과 복합 석유화학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며,

○ 2단계로 2017년 이후 3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석유화학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임

○ 금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에쓰오일은 **석유화학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정제시설을 첨단화하며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**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

○ 또한, 에쓰오일은 이번 투자를 통해 연간 수출 25억불 증대와 함께 **건설기간 중 하루 11,200~12,700명, 공장운영시에는 상시 2,200명, 정비·보수 용역인력 1,000명 등 고용유발효과와 울산지역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조 1,104억원**에 이를 것이라 함

* 상시 2,200명 : 직접고용(R&D 포함) 2,000명, 협력업체 200명

□ 아울러 한국석유공사는 금번 부지매각을 통해 노후된 지상 비축유 저장탱크를 **반영구적인 지하 저장시설로 대체**할 뿐만 아니라, 향후 **비축유 저장시설 유지관리비를 연간 20억원 이상 절감하는 등 비축기지 운영의 안전성/효율성을 향상**시킬 것으로 기대됨

* 지하 비축유 저장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지상탱크의 약 30% 수준

□ 한편, **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**은 2014년 3월 3일(월)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를 방문하여 **석유공사가 에쓰오일에게 매각한 부지를 둘러보고 부지의 매각 경과와 동 부지를 활용한 에쓰오일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직접 점검**하였음

○ 현장방문에는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, 김동철 에쓰오일 수석부사장(CEO Deputy), 장만식 울산광역시 부시장 등이 참석하여 부지매각 진행 경과와 향후 비축유 저장시설 지하화 계획 및 투자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을 설명하였음

□ 윤상직 장관은 **"금번 석유공사의 부지 매각은 정부의 투자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며,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상호 윈-윈하는 대표적인 투자유치 성공사례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"**고 언급하고

○ 향후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증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,

○ 특히 기업 등 수요자의 건의를 받아 투자를 막는 규제를 찾아 지속적으로 완화해나갈 것이며, 필요하다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. /끝/

참고 1. 울산석유비축기지 부지매각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
2. 울산석유비축기지 현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김정운 사무관(☎ 044-203-522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울산석유비축기지 부지매각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

□ 그간의 추진경과

○ 1차 무투회의('13.5.1, VIP) 후속조치로 투자활성화를 위해 울산석유비축기지*를 지하화하고, 지상부지는 수요기업에게 공장증설 부지로 매각 검토

* 총 180만㎡ 부지에 지상탱크 18기 1,350만B 규모(지하공동 2기 650만B 별도 운영)

○ 산업부 주관으로 사업추진전담반(T/F) 구성 및 석유공사에서 입지타당성, 경제적 타당성 확인을 위한 관련용역 수행('13.5~11월)

* 사업추진 방향 : ①추가재정 투입없이 현재 지상비축시설 지하화, ②수요기업에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매각, ③안전상·보안상 문제없이 추진

○ 석유공사에서 매각부지면적, 예정가격 등 핵심사항에 대해 제3의 전문기관(로펌)을 통해 재평가('13.12.20~'14.1.10) 및 입찰공고*(2.12)후 개찰(2.18)

* ①매각부지면적 920,411㎡, ②예정가격 5,190억원, ③제한경쟁입찰, 최고가 낙찰제

○ 2.21일 석유공사-에쓰오일간 부지매매계약 체결

□ 기대효과

○ (석유공사) 노후된 저장탱크(32년 경과)를 재정투입 없이 반영구적 지하저장시설로 대체하고 유지관리비 절감(연 20억원) 및 운영의 안전성 향상

* 지하저장시설 유지관리비용은 지상탱크의 약 30% 수준

○ (에쓰오일) 5조원+3조원 투자로 건설기간중 11,200~12,700명, 공장운영시에는 3,200명 고용증대효과와 수출증대 연 25억불 기대

- 석유정제(중질유분해)와 석유화학 연계로 산업주기 상호보완, 고부가가치화로 수익성 향상(저가 잔사유 → 고가 휘발유/석유화학제품) 등

* 건설기간중 12,700명(직접고용 2,000, 협력업체 200, 건설인력 10,500(일최대), 공장운영시에는 상시 2,200명(직접고용(R&D 포함) 2,000, 협력업체 200), 정비/보수고용 1,000명
* 울산지역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1,104억원(울산발전연구원)
* 투자계획: (1단계) 5조2,000억원('14~'17, 중질유분해/석유화학시설, R&D센터)
(2단계) 3조원이상('17이후, 석유화학시설)

□ 향후 일정

○ '14.3월 이후 저장탱크 철거공사와 지하화공사, 공장건설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'14.하반기에 공장건설 착공('17.12월 준공 예정)

- (지하화) 비축유 이송(~'14.10), 저장탱크 철거공사(~15.5), 지하화공사(~'20.6)
- (공장건설) 조사·설계(~'14.10), 부지정지('14.11~'16.4), 플랜트공사('15.11~'17.12)

참고 2 울산석유비축기지 현황

□ 연 혁

○ 1980. 5 ~ 1982. 9 : 지상탱크 건설(1,350만B)

○ 1981. 7 : 울산지사 개소

○ 1995. 7 : 해상 입출하설비 준공(Buoy, 30만톤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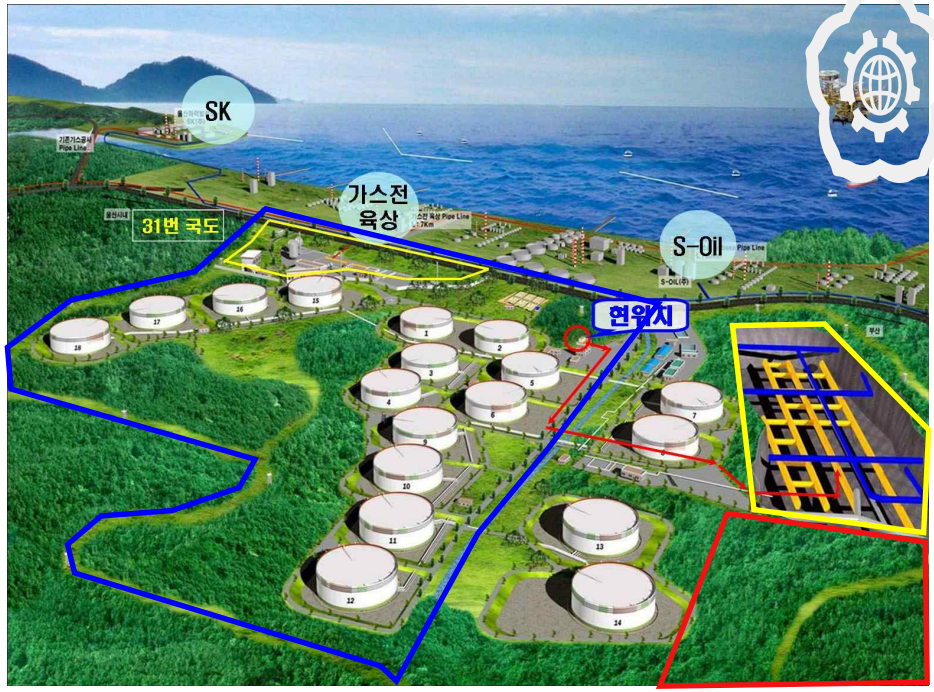
○ 2005.10 ~ 2010. 4 : 추가기지 건설(650만B, 지하공동)

□ 현 황

○ 소재지 : 울산광역시 울주군

○ 부지면적 : 184만㎡

○ 주요시설 : 저장시설 2000만B, 해상입출하시설(30만톤급 1기)



매각부지 지하화 부지 현재 지하공동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